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창

2023 | 겨울 vol.63



인공지능의 적정기술을 만드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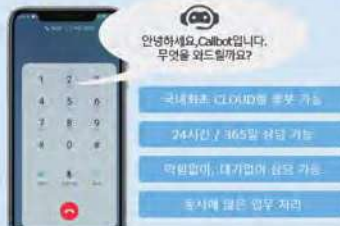
페르소나AI

챗봇



ROCHA AI

콜봇



CALLBOT

AI KMS



KGPT

스마트튜터(상담, 영업 시교육)



SMART TUTOR

AI 키오스크



DEEPTALK

메타휴먼, 메타 메뉴얼



META HUMAN



홍정호, 「빛고을」, 65×54, 장지에 혼합 채색, 2023.
개인전 18회(광주, 서울, 경기, 우주백).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 외 60여 회, 국내 외
초대 및 단체전 450여 회. 현재 한국미협 한국화부이사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조직
위원(21~23), 생목회, 호연지기, 감목회, 실사회, 전업작가회, 광주전통미술연합회.

2		‘창’을 열며 축복받은 삶	김양균	
3	특집 기획	2023년 핫 이슈, 문화도시 광주!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정착을 위한 과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논란에 대한 소회 상무관 검은비 논란과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지속되고 있는 예술현장의 감질과 성폭력 지역의 문화 협치 가능한가?	이현미 노성태 홍성철 김화순 최성혁	
14	문화 + 인	문화인 인터뷰 윤만식 한국민족극협회 고문 탈 많은 세상, ‘탈’만은 놓을 수 없었지	재단 편집부	
19		청년 문화인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단 단장 김병희 문화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김병희
22	연재 코너	연재코너_ 고전신화 이야기 텅그리와 부르한 4	김상윤	
25	기획 연재	기획연재_ 건축과 광주문화 ④ 국가유산기본법과 향토유산	신웅주	
28	문화 공감	진단 희경루(喜慶樓) 우여곡절 끝에 개관한 광주문학관에 거는 기대	이현재 박성천	
32		리뷰 광주여성영화제, ‘더 크게’ 도약하다 육군사관학교는 흥범도를 배워야 한다		광주여성영화제 사무국 정양주
36		문화특 남발하는 문화 속 진짜 ‘문화’ 찾기		김혜라
38		문화기행 숲과 물 사이, 유쾌하고 신비한 아름다움		김정희
40	포토 에세이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아파트성벽		
42		재단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축복받은 삶

김양균 재단 운영위원장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놀이가 잔디 깔린 마당을 맨발로 걸으면서 발바닥에서부터 온몸으로 전해오는 촉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대밭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숲향기를 깊숙이 마시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눈 뜨면 이리도 좋은 세상, 눈 감으면 이리도 편한 세상’을 중얼거리면서 눈을 감고 떴다를 반복한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눈에 들어오는 온갖 나무들과 꽃들이 내 눈을 통해 가슴 깊숙이 들어온다. 내가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정원이라 더욱 애정이 간다.

따뜻하고 달콤한 찐한 커피향이 실핏줄을 자극하니 살 떨림으로 젊은 시절 공연장을 가득 채웠던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소리가 소환되고 저절로 눈이 감기면서 잠시 행복감에 빠져든다.

‘나도 무대 위에서 날아다닌 적이 있었는데’라는 생각 속에 며칠전 한 친구의 힘없는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래도 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위안 아닌 위안을 삼는다. 청년시절부터 소위 말해서 문화운동을 해오던 친구인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들 나이 때쯤이면 빠질 수 없는 대화

의 핵심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를 시작으로 건강과 자녀의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대화의 수순이다. 애경사 문자가 날아와도 사람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노가다라도 해야겠다고 일 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진심어린 표정으로 이야기 한다. 또 나와 같이 사물놀이를 시작했던 친구는 최근까지 단체를 이끌었는데 지난해부터 폐차에 가까운 트럭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우리 시대에 예술가의 삶을 시작했던 대부분의 선후배와 친구들이 노후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세월의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정복당해버렸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끝없이 밀려든다. 그나마 부부 중 한 쪽이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심각성은 더한다. 그래도 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 받아 왔고, 몸 건강해서 민박집도 운영하고, 가끔씩 공사판에도 나가고, 강습도 하면서 인생 2막이라는 삶을 이어가고 있으니 축복 받은 삶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수명이 늘어 100살까지 산다는데...

바람 따라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빗자루를 든다. ☼

특집기획

2023년 핫 이슈, 문화도시 광주!

2023년, 지역의 문화계는 뜨거웠습니다. 민관이 각고의 노력끝에 결실을 맺었던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의 후속조치는 답보상태이고, 해묵은 이념 논쟁으로 변질된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겨울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제로 '2023년 핫 이슈, 문화도시 광주!'를 특집기획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2024년은 문화가 가지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광주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자 주

-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정착을 위한 과제
이현미_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무처장
-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논란에 대한 소회
노성태_ 남도역사연구원장
- 상무관 검은비 논란과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홍성철_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지속되고 있는 예술현장의 갑질과 성폭력
김화순_ 화가
- 지역의 문화 협치 가능한가?
최성혁_ 광주청년센터 청년응원위원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정착을 위한 과제

1. 조례의 제정과 조례의 태생적 한계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 보고서로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 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운동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우리시의 경우도 그간 문화예술단체 단원들의 성희롱, 갑질 피해 호소와 불공정 계약 의혹 등 각종 부조리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폐쇄적인 예술계 환경을 감안할 때 드러나지 않는 문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함.

본 조례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조례로 규율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인권익지원센터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 처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실태 조사 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 (중략)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행위 방지뿐 아니라 권리침해행위 발생 시의 구체적인 구제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 심사 보고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중)

2.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법으로 보호하는가?

예술인의 역할 :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 발전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장 제4조)

3. 예술인권리보장법 정착을 위한 한 걸음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복지법을 혼용하여 이해하거나 행정 편의상 두 법의 심의위원회 통합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 두 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권리보장법 정착을 위한 한걸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관정 합동의 조례 TF팀이 중점은 실제 작동되는 광주형 조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핵심은 예술인권익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었고, 핵심 사안이므로 강제 규정으로 두려웠으나 행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빠른 조례 제정으로 2023년도부터 활동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기약하며 임의조항으로 합의하였다. 그러함에도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성과외에 구체적으로 이뤄진 내용이 없다. 예술인 표준계약서 보급, 법률상담 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권리보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나 거의가 복지법에 근거해 문체부와 문화재단 보듬소통기관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후속조치를 실행할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유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예술인복지법 비교

구분	권리보장법	복지법
시행일자	2022. 09. 25	2012. 11. 18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 보호 노동과 복지등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 지위보장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의 예술정책 결정 과정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 활동 증진
대상	예술인 (전문예술인, 예비예술인)	예술활동증명한 예술인
주요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예술인 보호관(조사, 시정 등) 심의위원회(심의 및 의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다른법률과의 관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조례주요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회 예술인권익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조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광주광역시 예술인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지원 사업,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실시, 실태조사 등에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원 대상 및 소요 금액을 현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문화예술진흥팀)

조례제정까지는 민관정의 거버넌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후속조치는 전적으로 행정이 주도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장은 지원계획(목표, 추진 방향, 관련사업추진, 시책개발, 재원조달등)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강제조항), '광주광역시예술인지위와 권리 보장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을 받을수 있게 하였으나 시장을 도와 지원계획을 만들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복지심의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운영하자는 의견만 제시되고 있다.

예산이 수립되고, 예술인권리보장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의 한계와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한다는 행정의 입장은 찬성한다. 다만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 복지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한걸음이 될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권리 침해 예방과 실질적인 구제, 권익 보호라는 적극적인 법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하는 소극적 법이 아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잃어버리는 것들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 불가하므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논란에 대한 소회

올 한해 윤석열 정권이 보여 준 철 지난 이념 논쟁은 전 국민을 둘로 갈리치는 시대착오적이면서도 천박스러움의 극치였다. 그리고 짜증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독립 영웅 홍범도 동상 철거와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권력의 횡포가 압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자 국가보훈부를 비롯, 극우 세력의 총 반격이 시작되었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권력의 힘으로 소수 견해를 다수인에게 강요한 것이다. 천박하다고 한 이유다.

자유한국당이 정율성 공원 건립 반대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내걸자, 기다렸다는 듯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48억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을 달고 “정율성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닌, 조국의 산천과 부모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공산군 응원대장이었던 사람”이라며, 정율성이 의열단 단원으로, 조선의용군의 일원으로 일본과 싸운 항일독립운동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박민식이 정율성 공원 철회를 요구하자,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들마저 별뿔처럼 들고일어났고 우파 성향의 각종 언론 매체에는 ‘공산주의 성지’, 심지어는 ‘광주

는 북한과 형제’라는 등 광주를 빨갱이 집단으로 매도하는 댓글이 도배돼 있다. 이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는 정율성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보훈부는 북한 영웅 정율성 공원을 막아내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한다는 기사도 뜬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다. 한마디로 경악이다.

보수 우파들은 정율성의 의열단 활동이나 조선의용군의 일원으로 타이항산(太行山)에서 일군과 싸운 독립운동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이 열아홉살 나이에 신흥중학교마저 중퇴한 채 의열단 단원이었던 형 의은과 함께 중국 난징에 건너간 것은,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만든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는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일종의 사관학교로, 이육사 시인이 이 학교 1기 졸업생이었다. 정율성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2기로 졸업하고 의열단 단원이 되어 난징의 고루 전화국에 취업, 일본공사관이 본국과 통화하는 정보를 캐내는 첩보 활동에 종사한다. 그리고, 1937년 독립운동가였던 매형 박건웅이 중심

이 되어 조직한 조선민족해방동맹(해맹)의 특사 자격으로 시안(西安)의 팔로군관사처를 거쳐 옌안(延安)에 들어간다. 옌안에 들어간 후 작곡한 노래가 옌안 송과 팔로군행진곡 등이었다. 그러나 옌안에서의 그의 삶은 혁명음악가로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옌안에 조직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단체인 조선독립동맹에 참여하였고,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군에 소속되어 타이항산에서 일군과 치열하게 싸운 독립전사였다.

해방 후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의 선택지가 남쪽이었던지, 조선독립동맹에 참여한 그의 선택지는 북쪽일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 당시 중국 국적의 음악인으로 중국군 위문 공연 참여는,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아픔의 산물이었다.

오늘, 광주 사람들은 정율성을 김구와 안중근처럼 위대한 독립 영웅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2009년 중국에서 ‘신중국 건설 100대 영웅’에 선정되었고, 시진핑은 2014년 서울대학교에서 한·중 우의로 김구와 함께 정율성을 언급한다.

광주시는 정율성이 한·중 우의 인물로 주목받자, 정율성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역사자원, 더 나아가 한중 교류의 매개체로 인식했고, 정율성 공원 건립은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정율성 사업의 연장이었다. 정율성 기념 사업은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지속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정권은 정율성의 독립운동도, 한·중간의 미래 우호적인 역사 자원의 측면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6·25전쟁 당시 위문 공연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아예 광주를 싸잡아 ‘광주는 북한과 형제’라고 공격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 촉발한 정율성 공원 폐지 논란에 정부 여당도 합세하였다. 광주를, 호남을 색깔론으로 고립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총선전략임이 틀림없다. 만약 이게 총선전략이라면 정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한참 철 지난 낡은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전략이 지금 먹혀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공원 조성 중지 요구에 강기정 시장은 단호히 거부했다. 정말 광주인들의 ‘정의로움’을 지킨 올바른 처사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은 광주시민에게 맡겨야 한다. 광주시민들은 정율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한계성도 다 잘 알고 있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다.

정율성 공원 조성에 대한 논쟁,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치는 반역사적 논쟁은 대한민국의 오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역사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정략적이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현 정권과 보수 우파의 공격이 오늘 씩씩하고 허탈한 이유다. ♪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상무관 검은비 논란과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올해 10월 30일 오후 2시 5·18 민주광장에서는 ‘5·18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복원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 9월에 옛 전남도청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하라고 천막을 치고 대책기구를 만들어 싸운 지 꼬박 7년, 문재인 대통령이 복원 협의와 협력을 약속한 지 6년 만이다.

옛 전남도청은 건물 원형을 80년 5월을 기준으로 복원하여 5·18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대표 공간으로 만들고 내부는 1980년 5·18 당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의 유품과 구술 증언, 가상 콘텐츠 등 전시와 기록, 정보가 혼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식으로 복원사업이 본격화 된 만큼 이제 건물 복원은 이변이 없는 한 계획대로 2025년 하반기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건물 내부의 각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활용할 것인지, 즉 전시콘텐츠 도출 모델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후 전시콘텐츠와 관련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것이 상무관에 설치되어 있었던 이른바 ‘검은비’ 존치와 활용 논란이었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 내부에 들어설 전시콘텐츠가 얼마나 큰 관심사고 중요한 사안인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생각한다.

‘검은비’는 1980년 5·18민중항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는 의미를 담아 오월 희생자들이 대규모로 안치된 장소였던 상무관에 설치된 추모비 성격의 정영창 작가의 설치 작품이었다. 2018년 38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가 주최한 ‘오월 지킴이와 영원의 노래’ 메인 작품으로 광주민족미술인협회 작가들의 오월 어머니들(5·18 유족)의 초상화 10여 점과 함께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시되었던 상무관 프로젝트였다.

‘검은비’ 철거, 존치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8년 상무관 프로젝트 이후 1차와 2차, 연이어 3차 연장 전시가 끝나고 작품 회수 시기인 2020년 8월에 지역 언론에 ‘검은비 광주시에 헌정하겠다’는 정영창작가의 의사가 기사가 나오고 광주시의 거부 입장이 밝혀

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논란 2년 반 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던 차에 2022년 11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정영창 작가의 광주방문을 계기로 논란이 증폭되며 올해 초에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철거와 존치 논란이 거듭되면서 상호 이해와 협의보다는 급기야 검은비를 최초로 유치했던 5·18기념행사위원회가 광주시와 함께 철거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존치측에서는 작가들의 서명운동과 함께 상무관 앞에서 존치를 위한 시민행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광주시에 존치를 위한 중재안까지 제출하며 논란의 양상이 대결상태로 치달았다.

다행히 광주시가 적극 나서고 작가와 존치측, 철거를 주장하는 측과 특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노력으로 상호 대화와 협의의 장이 만들어 지고, 이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이 2월 28일 개최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작가는 검은비를 광주시에 헌정하고 광주시는 헌정을 받아 검은비 작품의 의미를 살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보관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전시 및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와 존치 논란은 종결되었다. 광주공동체의 문제해결의 의지와 새로운 경험을 축적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상무관 전시 설치 작품인 검은비 논란이 해결되자 그동안 검은비 논란으로 주춤했거나 멈춰 있었던 옛전남도청 복원과 건물 내부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수렴과 논의의 장이 바로 개최 되었다. 지난 5월 31일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전시콘텐츠 복원모델 도출 위한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전문가와 지역 문화계, 복원사업 관계자와 시민들이 처음으로 복원 모델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으

며 이를 시발로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기로 하면서 복원사업에 탄력을 붙여 갔고 지난 10월 30일에 복원 공사 착공식 순조롭게 치러졌다.

검은비 철거, 존치 논란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다소 더더지고 주춤한 측면이 부정적 영향이라면 논란이 복원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논란을 통해 그동안 무관심하거나 외면되었던 옛전남도청 복원사업과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공동체의 협력의 장을 만들었으며, 자칫 수면 아래서 무관심 속에 추진될 뻔한 복원사업 전반을 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홍보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어쩔 옛 전남도청 건물의 원형복원 보다는 건물 내부를 구성할 전시 콘텐츠와 운용방식 등이 훨씬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따라서 전시 콘텐츠 안을 합의하는데 난항이 있을 수 있고, 건물 복원 보다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광주공동체가 믿음과 소통, 신뢰와 협력으로 검은비 논란을 지혜롭게 해결했던 경험을 밑천 삼아 향후 옛 전남도청 전시 콘텐츠도 광주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훌륭한 모델을 도출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



홍성철
옛전남도청복원범비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지속되고 있는 예술현장의 갑질과 성폭력

2017년 미투운동 이후 우리 사회와 예술계는 변했을까요?

2022년 9월 26일 문체부에서 조사한 ‘문화예술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전국 예술인중 지난 1년간 성희롱·성폭력 경험자는 26.7% 약 4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6.7%라면 네명 중 한명이라는 것입니다. 네명 중 한명이 몇 년간의 사회적 각성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광주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계 특성인 평생 가는 끈끈한 관계, 폐쇄적 상하관계는 지역일수록 더 단단합니다.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성폭력은 슬프게도 현재까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피해예술인들이 본인의 꿈을 위해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과 같은 예술활동을 포기할 때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연극을 꿈꾸던 19세 여성. 그 여성은 40대 극단 연출과 PD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결국 몇 년 만에 연극과 광주를 떠나게 됩니다. 2017년 미투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지만 그 가해자들은 조용한 광주 연극계에서 여전히 막강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그 권력구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 3·8여성대회 때 연극계 갑질, 성희롱 문제에 앞장 선 장도국배우가 상을 받으며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은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해줄 연극계 동료들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22년 6월 첫 기자회견으로 이 사건은 공식화 됩니다. 그 피해생존자인 여성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으므로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돌아오고, 피해자는 떠납니다.”

1년 반을 싸워 온 광주연극계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표면상으로 일선에서 퇴출된 가해자들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은커녕 본인 수사에 소속 연극인들을 동원 하는 등 뻔뻔하고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공론화 된지 1년만인 지난 7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피의자 3

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생존자가 제기한 대부분이 기소 처분 된 것으로, 뻔뻔한 피의자들에게 강편치를 선물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한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론화 첫 기자회견 이후 광주여성예술인들은 공분하며 실명을 걸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미술, 연극, 영화, 문학, 음악, 무용, 기획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연결 된’ 162명의 광주여성 예술인들은 엄벌추구와 함께 ‘우리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예술계의 관행을 거부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분야를 총망라한 여성예술인들의 선언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타지역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광주다!”, “멋지다!”... 그러나 정말 광주는 기대할만한 도시인가요? 민주, 인권 도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여 있는 권력구조에서 서로 봐주는 문화, 남성적 조직문화, 인맥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일에도 비판하지 않는 문화 등 우리사회 곳곳에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 사건의 향방은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성예술인 뿐 아니라 탄원서에 동참한 675명의 시민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단체 58곳 등이 이 사건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맙다”

연극 동료로부터 온 메시지는 피해생존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예술계 곳곳 회식자리의 성희롱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술계에서 변태적인 성폭력

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피해생존자가 공론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렇듯 광주예술계의 특성상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갑질, 성폭력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결말은 우리 지역 예술계에 이전보다 더 강화 된 방식의 백래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시그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이러한 예술계의 요구와 함께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광주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구제, 성평등 예술환경 구축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무엇보다 현장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만든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구(예술인권익지원센터) 마련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근거를 마련할 뿐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 하진 못합니다.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공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예술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함께하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

김희순 화가



지역의 문화 협치 가능한가?

문화 협치란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지역의 문화 협치는 다양한 방법과 방향으로 진행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득 우리 광주의 문화 협치는 과연 잘되고 있는가 있는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로 지난 3년간의 현장에서 경험한 문화 협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내가 현장에서 느낀 협치는 어땠을까? 그 결론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과 우리에게 노력과는 별개로 실제 협치 구조를 확립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협치 문화 조성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문화 협치기구에서 다양한 논제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과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고 발전적이며 직접 대상자들의 유익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제시되었음에도 왠지 내 느낌은 퍼지지 못하고 허공 속에 머무는 메아리 같은 느낌일까? 한편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모든 문제가 그렇듯 시작점

부터 차근차근 협치 구조와, 의사 결정 과정, 정책 수립 및 정책 실천 등을 꼼꼼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그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은 시작부터 정책 수립 단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지만 결국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정책 실천 부분에서 결국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연 협치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주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다수의 의견으로 좀 더 효과적인 정책 실천 구조를 실현 시킬 수 있으나 우리의 협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에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 의지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 협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갑자기 머리 속이 다시 복잡해 지는 듯하다. 누가 그랬었나? 정책은 듣기만 좋고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담은 보기좋은 포장지일 뿐이라고... 아마 대부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문화 협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나의 지극히 주관적이지 개인적인 생각을 몇가지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재원의 부족이다. 문화 협치를 위한 예산 부족은 항상 큰 과제다. 예술과 문화 활동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며, 지역 정부의 관심과 노력, 더불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사실 협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살림을 꾸리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해외의 협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외부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하고 더불어 그들의 투자나 예산지원을 통해 좀 더 윤택한 자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건전하고 튼튼한 문화 협치 실현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유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단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많은 이들이 지적한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이다. 문화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특히 그 프레임 워크에 해당하는 정책 및 실무 계획 단계에서 꼭 고려해야 할 것은 문화 생태계 조성 and 활성화는 마치 직소 퍼즐과 같다. 큰 비전 아래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둘씩 더해져 갈 때 비로소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서로가 연관성있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좋지만 실제로 이러한 다양성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아주 많기 때문이다.

셋째로 문화 교육과 참여 증진이다. 지역 내에서 문화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 교

육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는 인위적으로 강요받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로 다양성과 인클루전 확보다. 모든 사회층 및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 협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포함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 대응이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학습이 필요하며, 디지털 문화 콘텐츠 제작과 배포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라는 큰 틀에서의 개념은 바뀌지 않으나 결국 문화 향유의 중심 주체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현실에 맞는 문화 환경 조성 and 정책 수립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문화협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필수 조건이라 할수 있다.

우리의 문화 협치는 결국 서로의 "협력과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



최성혁 광주청년센터 청년응원위원



탈 많은 세상,
'탈'만은 놓을 수 없었지

문화운동만 자그마치 40여 년이라고 한다. 한 문장으로서는 감히 그 세월과 다짐을 헤아릴 수 없으나, 시절을 회상하는 그의 한 마디마다 광주의 투쟁과 희생의 가치가 깊숙이 서려있다. 5·18민주항쟁 당시 문화선전대 역할을 주도했던 극회 ‘광대’, 광주 지역에서 마당극, 굿판으로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는 ‘놀이패 신명’ 등의 문화운동 거점지를 여럿 창단해온 윤만식 한국민족극협회 고문을 만났다.

문 먼저 40여 년의 문화운동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화운동에 뛰어들 계기와 긴 시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답 비결은 없습니다만, 제가 대학에 복학하고 전남대학교 탈춤반 활동을 하면서부터 학내 문화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이때가 1977년도 겨울, 광주 YMCA ‘가면극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1978년도에 정식으로 전남대학교 동아리로 등록을 해요. 그때부터 탈춤을 후배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때 당시는 학내 문화운동 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4학년에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넓은 범주의 사회문화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광주 YWCA에 극회 ‘광대’를 등록하게 됩니다. ‘광대’ 활동을 하면서 1980년도에 <돼지풀이> 마당극 공연도 하고, 황석영 시인의 작품 한씨연대기를 연습하던 중 5·18 민주항쟁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80년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시기였는데, 동시에 ‘광대’ 활동과 겹쳐서 활동을 해오다 자연스럽게 5·18을 맞이하면서 항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항쟁기간에 도청분수대 쫓기대회, 투사회보, 대자보, 현수막 제작 등 문화선전대 역할을 하고, 항쟁이 끝난 후 제일먼저 5·18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작업부터 5·18의 원인 규명, 발표 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문 5·18민주항쟁을 계기로 사회활동에 더 비중을 두시게 된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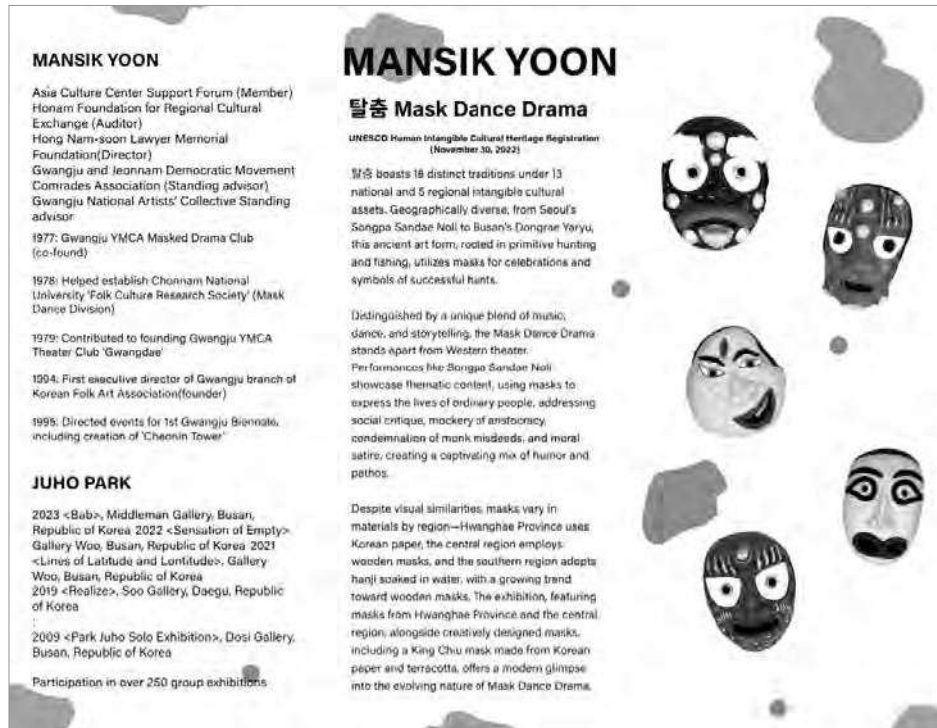
답 70년대 후반에도 문화예술적인 활동이라기 보단 박정희 정권 말기 때 유신독재 정권을 타파하기 위한 일원으로서 사회문화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80년으로 접어들게 된 거고요.

문 많은 분야 중에서도 탈춤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다면요?

답 여담이지만 제가 서울에서 3수를 했는데 우연히 종로 2가에 있는 YMCA에 탈춤강습회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탈춤이나 배워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대학생만 접수를 받는 거예요. 재수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쪽팔리고 화도 났었는데, 이후에 전남대에 입학하자마자 1학기를 마쳐놓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76년도에 복학을 하고 77년도에 광주 YMCA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탈춤강습회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전에 못 배웠던 탈춤이 불현듯 생각나서 이 기회에 한 번 배워보자 하고는 2층에 올라가 접수를 하고 탈춤을 배우게 됐어요. 그 때 배운 게 봉산탈춤의 기본 춤인데, 복학해서 그 춤을 후배들한테 가르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문 남았던 아쉬움을 기회로 잡고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40여 년의 시간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말해주듯 단순한 흥미가 아닌 굳은 결의를 가지고서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오기라고 할까요? YWCA 극회 ‘광대’가 5·18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선전대 역할을 하게 됐어요. 도청 분수대 위에서 쫓기대회를 주도했던 팀이 우리 ‘광대’였어요. 필요한 현수막, 풋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썼고요.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이런 문구를 쓰고, 대자보까지 써서(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



내년 1월 뉴욕 퀸즈에서 열리는 전시회 리플렛

있어요) 시내 곳곳에 붙이고.. 이런 문화선전대 역할을 했죠. 그리고 1981년도까지 '광대' 활동을 하다가 물리적인 힘으로 팀이 해산돼요. 그리고 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그때 광주에 모든 운동권이 1980년을 겪고, 죽고, 잡혀가고, 도망가고 하면서 아주 조용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후배들 몇 명과 함께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내서 '문화'라는 장르의 힘을 가지고 이 시대상을 풍자와 해학적으로 풀어내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982년도에 '놀이패 신명'이라는 극단을 만듭니다. 제가 선배로서 책임감 있게 이끌어나가다 보니까 결혼하고 자영업도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공연과 전시를 겸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 레스토랑 '꼬두메'를 공동 지금의 예술의 거리에 차리고 진보적인 전시, 공연, 음악 등을 운영하면서 운동권 출신들의 사랑방이 되었죠.

84년도에 조직적인 문화운동 단체의 필요에 의해

후배들과 만든 단체가 '광주민중문화연구회'라는 시민단체예요, 문학, 연극, 마당극, 노래, 미술, 사진, 풍물, 국악 등 각 장르 단체들이 모여 활동을 하다가 6월항쟁을 맞이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 하면서 '광주.전남 민중문화운동 협의회'로 개칭하고 운영위원장으로써 역할을 하게되고 이러한 단체의 책임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자의도 있지만 주위 환경이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 와중에 새로운 장르의 예술단체를 만들기도 하였죠.

87년 6월 항쟁을 겪은 후 서울에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민예총)가 결성되고 각 지부가 생기는데, 광주에도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1994년도에 광주 지부를 조직하고, 1995년도에는 제1회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에는 갑자기 후배들이 민예총 광주지부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근무하다보니 민예총 서울 본부가 문제가 생겨

각 지부가 지역에 새롭게 법인체를 등록하는 분위기에 제가 또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을 광주시에 등록하고 4년간 봉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학내 문화운동부터 시작하면 한 45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자부하는 게, 광주의 문화운동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게 나름대로 제 역할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 ‘광대’, ‘놀이패 신명’ 활동을 하면서 연출가, 배우로서의 역할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당극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답 내가 외면적으로 강한 인상이에요, 그렇죠? 성격도 실제로 센 편이라서 배우를 하더라도 강한 역할 밖에 못해요. ‘놀이패 신명’의 창립 공연 〈안담 살이 이야기〉에서 일본 순사 역으로 등장했어요. 의병들을 고문하고 잡아다니는 역할을 맡은 기억이 나네요. 또, 1986년도에 〈광대〉라는 작품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을 주제로 한 공동 창작극인데요. 거기에서도 일본 순사 역으로 독립군들을 물고문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연출로서는 송기숙 교수의 〈당제〉라는 작품이 있는데, 중편소설을 각색해서 마당극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연습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 후배들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 연출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1982년 이후부터 한 10년 간 제가 ‘놀이패 신명’ 작품 대부분을 연출했는데, 80년 5월 항쟁 이후 당시에 통일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게 퍼졌었어요. 자연스레 우리 팀도 영향을 받고 통일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이라는 시극으로 연출한 작품이라던가, 〈당제〉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이고요. 그 주제들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문 그 당시 마당극은 대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 모두를 아우르는 호응과 참여를 불러 일으켰는데, 현재 마당극뿐만 아니라 민중문화운동의 대중성 확보야 말로 문화의 목적이자 운동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중예술이 고립되지 않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신다면요?

답 그 일환으로 시작한 게 바로 마당극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공연의 대표적인 행위가 탈춤과 창극이었잖아요. 판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전부다 마당, 야외에서 공연을 진행했어요. 이러한 공연 행위는 그대로 가져오고, 봉건주의 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등의 내용으로 재창조한 것이 이 시대의 마당극이에요. 전통 탈춤공연을 한다면 그 내용과 형식이 비슷해도 과거 조선시대의 내용이겠구나 감안하고 보겠지만, 현 시대와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생각해보았을 때, 자본주의 사회적 인물,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사용자 등 소위 ‘갑’을 칭하는 인물, 그리고 ‘을’을 칭하는 노동자, 농민 등의 인물을 등장시켜 갈등구조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가락, 음악, 춤 등의 기본 형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에서도 모두 알 수 있는 노래로 바꿔낸다면 조금 더 현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극의 형식은 탈춤이나 창극에서 그대로 가져오고, 내용에만 현 시대상을 담아내면 충분히 호응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층과 다양한 층의 대중을 많이 끌어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 얼마 전 탈 전시회에서도 보었는데요. 탈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답 처음에 저희가 봉산탈춤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탈이 없으니까 빌려야했어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탈을 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땀에 젖고 그러면 훼손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훼손되면 변상해야 하고, 금액도 비싸게 받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냥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



봉산탈춤 취발이 탈과 함께

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당극에 맞는 인물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창작탈도 만들게 된 거고요.

문 한국 탈이 가진 의미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탈에 개인적인 애착을 갖고 지금까지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답 우리나라 탈은 독창성이 커요. 중국의 변검이라던가 일본의 노, 가부키는 소재가 같고 종류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탈은 소재와 형태가 다양해요. 황해도 쪽은 한지로 만들고, 중부지방은 바가지로 만들고, 경상북도 안동은 나무로 만들고, 경남의 오광대와 부산의 야류는 옛날에는 한지를 물에 풀어 바가지 위에 붙여가지고 조악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로 바가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요.. 작년에 우리나라 탈춤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는데, 탈춤뿐만 아니라 놀이에 썼던 의상, 탈, 소도구, 악기, 가락 등 전부 다 총망라해서 등재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 탈의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탈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내년 1월 즈음에 뉴욕 맨해튼에 옆에 퀸즈에서 탈 전시를 합니다. 그 전시에 출품할 탈을 제작하느라 엄청 바빠 살고 있습니다.

문 40여 년의 문화운동 활동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이 있다면요?

답 5·18이죠. 5·18 때 우리 광대 팀의 역할. 그 때 당시 조직적으로 5·18을 접한 단체가 우리 광대하고 들불야학, 그리고 몇몇 단체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선배 그룹들은 사전 구속이 되어버렸고, YWCA 소심당이 본부였는데, 거기서 광대 팀과 제가 대자보를 쓰고, 들불 야학 팀이 투사회보를 쓰고, 국세청 마당에서 플랜카드 쓰고, 도청 분수대에서 쫓기대회를 날마다 주도했었죠. 그런 문화선전대 역할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죠.

문 이 날을 계기로 문화운동을 이어오신 결의가 남달랐던 게 아닐까요.

답 그정도는 아니고, 그냥 탈춤 배우러 갔다가 시작된 거죠.(웃음) 선배라는 개념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후배를 이끌고, 그러다가 문화운동 차원에서의 조직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민중문화연구회, 광주 전남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예총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활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제가 끌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만큼 가족에게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해서 좋은 남편과 아빠는 아니었어요.

문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여쭙고 싶네요.

답 부산의 동래야류에서 제작한 독특한 기법의 바가지탈을 제작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 작업 계획이 있는데요. 5·18 민중항쟁에서 문화운동을 했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마당극과 무대극으로 연출하고 싶어요. 50주년 안에 쓸 계획이에요.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 살아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광주 문화운동이 5·18 민중항쟁때 했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극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문화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최근 신도시 집중화,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로 많은 지역들이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지역문화진흥법」 제9조 문화 환경 취약지원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에 근거) 등이 있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순천에서 문화도시 조성(예비)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 강진군에서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예술인 중심 사업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인 활동을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영 원리가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진정한 문화도시’의 의미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다 이야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기로 하고 이번 호에는 올해 강진에서 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방 소멸 도시’ No! ‘음악도시’ OK!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지역문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고,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교통 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단순히 주소지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 ‘관계인구’를 얼마나 확장시키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필자도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강진군과 광주 양쪽에서 일하며 활동하고 있다.

강진군의 대표적인 관계인구 확장 정책 중 하나는 음악도시 조성사업이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단에서는 문화예술 레지던시 ‘강진, 살자’라는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의 예술가들이 강진에 와서 스스로 공연 장소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관광지와 공연장에 집중되었던 공연이 이제는 11개 읍면 90여 곳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공간 바로 앞에서 공연을 즐기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예술가들에게 먼저 음료수와 쉴 곳을 내어주기도 하며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예비부부 예술가 두 팀을 포함하여 인천, 경기도, 광주 등에서 온 6팀의 예술인이 이주 및 정착을 희망하며 ‘음악도시 강진’의 성공 가능



마을문화 퍼레이드



선돌감기

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외에도 지역을 주제로 한 음반 제작 사업에 총 21곡이 정식 음원으로 등록되어 음악으로 강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발매된 음원들은 강진 문화의 밤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지에서 울려 퍼지며 계속해서 활용될 예정이다. 조용했던 지역의 작은 도시에 ‘음악’이라는 콘텐츠 더해지자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래치기’와 ‘선돌감기’

사업단에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자원 중에서도 마을 전통문화를 주민주도 예술 콘텐츠로 제작하는 ‘마을 문화 쇼케이스’를 추진했다. 강진군의 전통문화 중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병영면의 ‘가래치기’와 작천면 전통문화인 ‘선돌감기’였다.

‘가래치기’는 농사가 끝난 후 수심이 얇아진 저수지에서 ‘가래’라는 통발처럼 생긴 도구를 활용하여 물고기를 잡아 함께 나누어 먹는 마을 전통 행사이고, ‘선돌감기’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할머니 돌’, ‘할아버지 돌’에 옷을 입히고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전통이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로 전통 계승자가 감소하는 것은 지역문화의 큰 위기지만 문화예술 콘텐츠로 승화한다면 전통을 이어감과 동시에 가장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가래치기’는 지역 전통 음악과 EDM을 믹스한 음원을 활용하여 댄스, 창작 안무, 개량형 가래 등을 가미하여 짧은 공연 시간 내 관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조금은 서툴지만 마을 주민들의 주도로 안무 연습을 진행하였고, 직접 무대 의상과 소품 등 공연과 관련한 모든 것들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제 가물치를 무대 위에서 잡아

올리는 퍼포먼스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선돌감기’는 뮤지컬로 다시 탄생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민·관·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인구 감소가 심한 작천면이지만 작천초등학교는 귀촌 선진 학교로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수학하고 있었다. 전통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었지만 본격적인 연습에 앞서 먼저 선돌이 있는 마을에 방문하여 선돌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교동마을 이장님의 이야기도 들으며 아이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연습도, 공연도 더욱 열정적으로 잘 참여하지 않았나 싶다.

결론

마을 전통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곳들은 많다. 하지만 현대의 상황에 맞게 계승하는 곳은 많지 않다. 주먹구구식으로 전통이니깐 보존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획자나 지자체장의 의도대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지역민들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역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꼭 함께 생동하는 과정을 고민하길 바란다. ♪

김병희 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단 단장



텡그리와 부르한 4

최남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보자.

진시황 시절에 불로초를 구하러 동쪽으로 갔다는 서불(徐芾/市)이라는 방사(方士)가 있다. 서불은 때로 서복(徐福)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밝에서 ㅂ이 탈락하면 서불이 되고 ㅂ이 탈락하면 서복이 되므로 결국 서불의 ‘불’은 인명이라기보다는 방사계급의 일반적 호칭이거나 옛 신화적 인물에게 붙이는 불 또는 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최남선의 해석이다. 더하여 중국 도교의 술사인 방사(方士)라는 명칭도 샤먼을 나타내는 박수를 중국식으로 표현한 용어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 하고 키르기스어로는 박사라고 하는데, 방사란 박수나 박사가 중국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터키에서도 샤먼을 박수라고 한다. 최남선은 이처럼 중국 신화시대나 역사시대에 밝과 텡그리의 흔적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 신화를 그리스 신화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위엔커(袁可)는, 중국 도교의 근원으로 발해만 근처에서 발생한 ‘삼신산’ 사상과 중국 서쪽으로 들어온 ‘불사조’ 사상을 들고 있다. 발해에서 가끔 나타나는 섬 모양의 신기루 현상이 바다에 떠 있는



흥노 우현왕이었던 휴도왕

삼신산이 되고 그곳에 신선이 살고 있다는 신선사상으로 발전했으며, 서방에서 들어온 불사조 관념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단약(丹藥) 관념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삼신산 신선사상과 불사조에서 비롯된 단약관념이 결합하여 중국 도교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에 고조선 지역이 들어 있다.

위엔커가 도교의 시원을 신선사상과 불사조관념으로 파악한데 비해, 최남선은 천신사상과 단군사상에서 도교의 기원을 찾고 있다. 단군은 하늘의 아들이서 매우 오랫동안 살았으며 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돌아갔으니, 그 존재 자체가 신선 또는 선인으로 당연히 신선사상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채호는 우리 고유의 신앙을 '수두교'라고 불렀다. 수두란 소도(蘇塗)에서 온 말일 것이다. 김씨의 시조라는 투후 김일제의 아버지는 흉노 우현왕이었던 휴도왕이라는 주장이 있다. 신채호는 휴도왕이라는 명칭이 바로 수두왕으로서 수두교의 제사장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해석했다.

최남선은 불함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밝사상이 처음 시작된 곳이 흑해 주변이라고 했다. 의외다. 『불함문화론』을 처음 번역한 정재승은, 밝의 발생지는 흑해보다는 바이칼호 주변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최남선은 불함문화의 발상지가 흑해 주변이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백두산과 고조선 일대가 텅그리와 밝사상의 중심이 된 것인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나는 신용하의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신용하는 수메르문명과 이집트문명에 이어 세계 3대 문명으로 '고조선문명'을 들고 있는데, 신용하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따라가다 보면 최남선이 텅



위안커의 책

그리와 밝사상이 고조선지역에서 가장 왕성하다고 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구석기인들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채집하여 먹을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 인위적 ‘문명’을 만들 수 없었던다. 구석기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매일 찾아오는 밤의 ‘어둠’이었는데,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무리는 태양이 솟아올라 밝음이 먼저 찾아오는 동쪽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古)한반도와 연해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어서 수십만 년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해 온 구석기 무리의 인류사적 종착역 같은 지역이었다. 당시에는 대만과 한반도가 중국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구석기인들은 약 1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이곳에 도착하여 계속 살고 있었는데, 약 5만3천 년 전부터 1만3천 년까지 뷔름빙하기가 찾아오자 북위 40도 이상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북위 40도 이남 동아시아에서 구석기인들이 추위를 피해 살 수 있는 곳은 석회암 동굴이 많은 고한반도였다. 고한반도 중부지역에는 무려 1,000여 개의 석회암 자연 동굴이 있어서, 계속 이동해 오는 구석기인들로 인해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약 1만2천 년 전부터 기후가 따뜻해지자 이곳 구석기인들은 동굴에서 나와 새로운 ‘신석기시대’를 열게 되었다. 한반도 중부지역에서는 약 1만2천 년부터 단립벼를 재배했고, 약 8천 년 전부터 콩과 팥을 재배했으며, 약 5,000년 전부터 3,600년 전 사이에 청동기문화를 형성하여, BC 30세기에서 BC 24세기 사이에 한강문화 대동강문화 요하문화를 통합하여 동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 고조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뜨는 곳을 찾아 이동해온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태양을 숭배하게 되었고, 고조선의 성립으로 탱그리를 숭상하는 단군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우랄 알타이어족의 조어(祖語)인 고조선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조선은 최초의 기마문화를 토대로 고조선 문명을 여러지역에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고조선문명은 신석기시대 한족(韓族 - 밝족)의 한강 대동강문화, 맥족의 홍산문화, 예족의 신락문화를 통합하여 약 5천 년 전 고조선이 건국되면서 탄생한 인류 세 번째 고대문명이고, ‘우랄어족’, ‘알타이어족’, ‘우랄 알타이어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문명의 뿌리이며, 태양과 탱그리를 숭상하는 신앙을 여러 곳에 전파한 문명이라는 것이다. 최남선이 주장한대로 고조선과 백두산 주변이 불함사상의 중심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김상운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국가유산기본법과 향토유산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함으로써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토록 하며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의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60년 이상 사용된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유형유산 등인데 이중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속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포함되며 무형유산은 무형문화재를 포괄한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명칭도 기존의 문화재가 ‘유산’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면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시도유형유산’, ‘등록유산’으로 변경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의 개념이 신설, 적용되는데, 비지정문화재 중 법적 근거가 없었던 ‘향토 문화유산(또는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

되고, 관련 법이 정비됨으로써 유형유산 뿐 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통칭하는 용어로 변경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관의 명칭도 ‘국가유산 처(청)’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인 유산과 비지정 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보존 및 관리 중심에서 활용, 향유, 진흥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은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파악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지역별로 단계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그간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4차년도인 올해 2023년은 3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광주·전남·제주지역 약 12,000여 곳(광주 403곳, 전남 7,192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북구 두암사 사당(출처: 본인촬영)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공공 및 민간에서 조사한 방대한 비지정문화재 관련 자료를 총망라하여 일관된 양식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것으로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광의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물리적인 정보 외에도 역사, 문화, 사회 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역사문화자원의 방대한 DB는 국가유산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인 목록유산으로, 향후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국가유산 지정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은 각 시·군·구에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산이다. 지난 11월 말,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은 전국 향토유산을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의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국가유산 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조례 중심의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에는 지정 및 등록 중심의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까닭에 향토유산의 용어 정의 및 향토유산의 선정 근거 등을 제시하는 등 보호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국가



광산구 귀후재(출처: 본인촬영)

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최소한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가능하고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개별 법률의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례 중심의 관리체계가 갖는 예산, 인력 등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등 현행 문제점의 해소가 어렵고, 향토유산의 보존 활용에 관한 적극적인 법률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으로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과 동시에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안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을 통해 향토유산이 잠재적인 국가유산으로 인식된다면 지정 및 등록유산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개념의 유산 체계로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토유산 관련 경비 지원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으로 향토유산의 범주 내에 있을 경우,

특히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지정 및 등록유산과 유사한 보존 관리 수리 활용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광주광역시의 향토유산 관리는 어떠한가? 최근 3년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유산의 선정과 보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홈페이지 등재 기준으로 보면 북구는 두암사(斗巖祠), 균산정(筠山亭) 등 2곳, 서구는 학산사(鶴山祠), 봉산사(鳳山祠), 김세근장군묘(金世斤將軍墓) 등 3곳, 광산구는 비지정문화재의 명칭으로 지어재(志於齋), 귀후재(歸厚齋) 등 68곳이다. 동구와 남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구의 경우 최근 약 30여 곳의 조사 대상 선정하고 가치 판단을 통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광주광역시는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내에 산재하는 건축자산 약 500여 곳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였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건축자산의 기초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등재할만큼 가치있는 대상들이 존재하므로 각 구청에서는 잠재 국가유산인 향토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고 보존 및 관리 예산을 지원받는 법률 제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향토문화유적표준데이터(<https://www.data.go.kr/data/15021147/standard.do>)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향토유산은 약 4,500여 곳으로 광주광역시 각 구에서 등재한 향토유산 수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이후 진행될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후보 목록화와 선정의 절차가 시급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가치(價値)가 낮은 사유 재산, 문중재산 등이 무분별하게 선정되는 것을 막



동구 광주극장(출처: 나무위키)
근대건축물도 향토유산이 될 수 있다.

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향토유산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회와 협업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도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은 1조 3,48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분야별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에 8,145억원, 문화재 활용에 961억원, 문화재 국제교류에 564억원, 문화유산 교육연구에 792억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에 1,823억원 등이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문화재청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이제는 ‘청’이 아닌 ‘처’의 역할을 통해 중요한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듯하다. 광주광역시와 각 구청도 문화재 행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후 국가유산 행정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 발걸음으로 가치있는 잠재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떤까? ♪



신영주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수리기술전문위원

희경루(喜慶樓)

전라도 정도(定都) 천년(1018~2018)을 기념해 조선시대 광주목 관아 객관(客館) 누각이었던 희경루를 광주공원에 정면 4칸, 측면 3칸의 중층 누각으로 정면 현관은 1451년 광주목 복호와 희경루 낙성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문종공순대왕실록에서 집자했으며, 후면 현관은 필문(畢門) 이선제의 후손 이남진(경재) 서예가의 지도를 받아 강기정 광주시장이 쓰고 준공식(9월 20일)을 가졌다

희경루는 조선 문종 때인 1451년 무진군으로 강등됐던 광주가 광주목으로 복권된 것을 기념해 새로 지어진 관아 누각에 ‘기쁘고 경사스런 일’이란 의미로 이름 붙여졌으며, 일제 강점기 광주읍성이 해체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그 자리는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부근으로 추정한다.

1430년(세종 12년) 광주 고을 사람 노흥준(盧興俊)이 당시의 목사(牧使) 신보안(辛保安)을 구타한 불경한 사건이 일어나 광주목(光州牧)이 무진군(茂珍郡)으로 강등된다. 1450년 광주목(光州牧)으로 복호(復號)되자 1451년(문종 원년~1년) 전라도 무진군 태수(茂珍郡 太守) 안철석이 광주읍성 객사(광산관, 光山館) 옆에 건립했던 누각(樓閣)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 뜻으로 희경루(喜慶樓)라 하였다.

광주읍성[光州邑城, 光山城]은 언제 처음 쌓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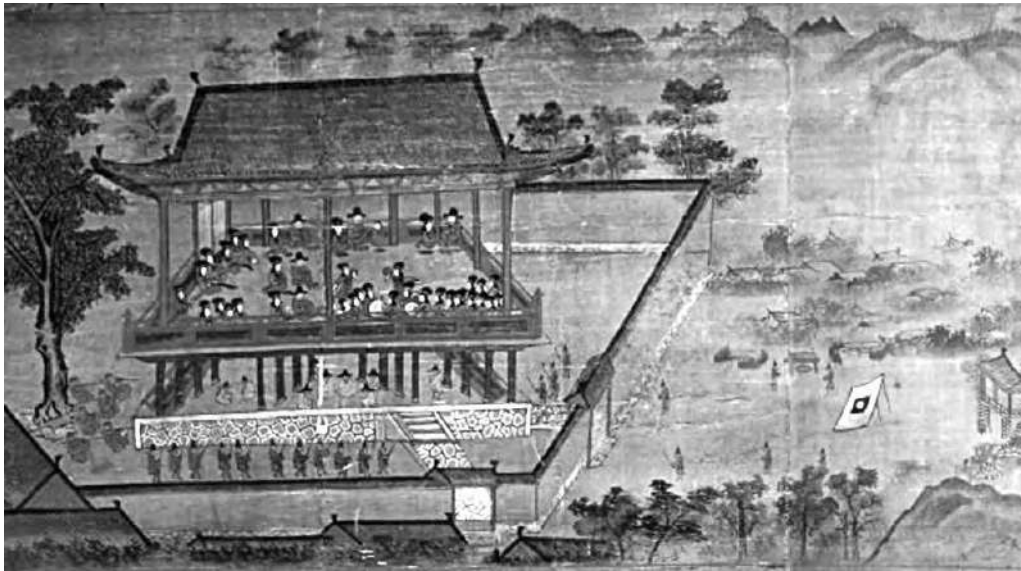


새롭게 지은 희경루의 모습

는 명확하지 않으나, 여말선초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되었을 것으로 최초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1452)이다. 이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65), 대동지지(1866), 광주읍지(1899)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읍성은 돌로 쌓았고, 둘레가 972보이다.” 주위가 8253척이고, 높이가 9척이며, 안에 우물 백 개가 있다.”고 한다.

당시 신숙주(1417~1475)가 쓴 희경루 기(喜慶樓記, 1451)에 ‘동방(東方)의 제일의 누각’으로 표현할 정도로 웅장한 건물이었다. 이후 1533년 광주목사 신한 때 화재로 소실된다. 1534년 1차 중건 1566년 중축한다.

동국대박물관 소장 보물 제1879호(1567년 기록화,



희경루 방회도

계회도 비단바탕 채색 크기 세로 98.5cm, 가로 76.8 cm, 2015년 지정 희경루 방회도(喜慶樓榜會圖) 죽자를 바탕으로 당시의 모습을 고증한 자료를 보면

1567년(명종 22) 전라도 광주의 희경루(喜慶樓)에서 1546년(명종 1)의 증광시 문·무과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만나 모임을 갖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계회도로 위쪽부터 표제·그림·좌목·발문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전서체로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라고 썼고, 그림은 연회가 펼쳐지는 희경루와 그 주변의 공간을 그렸다. 좌목에는 다섯 사람의 인적사항을 품계·관직·이름·자·본관 순으로 기록하였다. 좌목의 아래쪽에는 모임을 갖게 된 경위를 초서체로 썼다. 이 글을 통해 이들의 모임에 관한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참석자들은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 전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劉克恭),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등 5인이다. 이들은 모두 전라도 광주 인근에서 근무하거나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동기생들이다. 이들 가운데 최응룡·임복·강섬은 1546년(명종1) 증광시의 문과 합격자들이고, 유극공과 남효용은 무과에 합격

한 자들이다. 화면 아래의 발문은 최응룡이 썼는데, 1546년의 과거시험에 함께 합격한 이후 20년만의 만남을 회고하고 자축하는 내용이다. 동기생들이 앉은 자리를 보면, 전라도관찰사 강섬의 관직이 가장 높지만, 광주목사 최응룡이 상석(上席)에 앉았다. 최응룡이 과시에서 장원(壯元)을 했기에 장원급제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회 장면에는 36명이나 되는 기녀들이 누정에 올라와 연주와 무용 및 시중드는 모습이 다채롭게 그려져 있다.

희경루는 새로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예향 광주의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광주의 큰 잔치(宴會)가 이루어지는 자리매김 빛고를 생명의 도시 문화 관광 자원화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우여곡절 끝에 개관한 광주문학관에 거는 기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문학관이 지난 2006년 건립 논의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지난 9월 북구 각 화동에 개관했다. 문학관 건립은 그동안 지역 문학인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한때 광주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는 도시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거창한 수사 이면에 모든 문화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문학관 하나 없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150여 만명의 도시에 단 하나의 문학관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문화행정을 책임진 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올해 개관한 광주문학관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처음 들어선 문학관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사실 문화적 측면에서 위대한 문인과 문학관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직결된다. 문학관은 작가의 삶과 문학세계가 응결된 구심적인 공간이다. 지역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는 그 자체로 ‘국부(國富)’로 인식된다.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은 작은 도시임에

도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주민들 상당수는 셰익스피어 관련 문화관광사업에 종사하며,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은 매일 작품을 공연한다.

광주에도 내로라하는 문인들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의 문학과 문학 정신을 담아내고 기념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 문학관이 없었던 데는 여러 요인이 있었다. 가장 큰 원인은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문학단체 간의 불협화음, 몇몇 문학인들의 사심 등이 맞물려 문학관 건립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화문화마을에 자리한 광주문학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상설 및 기획전시실과 도서 및 영상자료실, 세미나실, 다목적 홀, 카페,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기획전시실에서는 광주문학 연대기를 입체적 미디어아트로 만날 수 있다.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문인들의 명시는 그 시대의 감성을 선사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읽어도 전혀 고루하지 않고 새로운 맛과 의미를 환기한다. 상설전시장은 마한시대부터 1980년 오월문학까지를 아우른다. 지역문학의 흐름은 물론 근현대문학을 일궈온 작가들의 문학세계, 광주문학의 시대정신과 그 뿌리 등을 훑어볼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있는 공간이다.

또한 광주를 대표하는 4대 문인과 시대정신을 담은 오월문학 주제관도 꾸려져 있다. 순수시를 개척한 박용철 시인, 고독과 커피와 눈물의 김현승 시인, 남도를 대표하는 저항시인 문병란, 현대시조의 개척자 정소파 등 각각의 공간에서는 오늘의 광주 현대문학을 이룬 문인들의 문학혼과 생애를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관이 향후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다양한 문화공간과 인접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접근성 면에서는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다. 추후 마을버스 유치 등 대중교통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문학관은 건립과 개관에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콘텐츠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작고 문인들의 유품이나 육필 원고 같은 자료 기증 등 콘텐츠 확보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문학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문학관은 타지의 문학관 운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다녀왔던 여러 문학관 가운데 두 곳의 예를 들고자 한다.

먼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최명희문학관은 전주 대표 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문학관 인근에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 문화가 집약된 한옥들이 들어서 있는데 하루 평균(휴관일 제외) 500여 명, 연간 약 14만여 명이 방문할 만큼 전주의 핫 플레이스다. 생전의 최명희 작가는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라고 명명할 만큼 우리의 고유 언어에 대한 정치한 미의식을 소설 「혼불」에 투영했다. 한옥 구조의 문학관은 그러한 작가의 장인정신이 집약된 곳으로 매년 지역 특성에 기반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하동의 박경리문학관은 25년에 걸쳐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했던 작가의 문학적 혼과 삶이 응결

된 의미있는 공간이다. 문학관 인근에는 최참판댁 고택, 토지마을이 조성돼 있는데 다른 어떤 풍경보다 압권이다. 특히 수십여 동의 초가 마을은 조선시대 시골의 옛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모습이다. 초가지붕과 낮은 사립문, 아기자기한 골목은 당시의 장면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어 생동감을 준다. <하녀들>, <비밀의 문>, <조선 총잡이> 등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됐다.

광주문학관 인근에도 충분히 우수한 문화자원들이 있다. 미술관을 비롯해 청소년문화의집, 각화저수지 수변공원 등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광주문학관의 활성화 내지는 의미있는 콘텐츠 생산으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문학관은 단순히 문인과 관련된 자료 보관소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가. 창작활동 외에도 사유와 사유,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문학에 애정이 많은 문학인들이 한결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있다. 모 인사는 “개관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친 광주문학관이 앞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면서도 “지난 시기 문학을 매개로 ‘입김’이나 ‘이권’을 행사하려는 단체나 인사들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학관과 시는 물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문학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성천 <광주일보> 문화부장

광주여성영화제, '더 크게' 도약하다

14회 광주여성영화제가 11월 12일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했다. 지난 8일 '더 크게 한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광주극장에서 개막한 14회 광주여성영화제는 CGV광주금남로와 퍼플레이 온라인상영관에서 5일간 진행됐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14개국에서 도착한 53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났다.

더 크게 한판, 아시아여성영화제로!

14회 광주여성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는 “더 크게 한판”이었다. 우리를 가로 막는 무수한 반동들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 같아도 서로가 연대하여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나가자는 염원을 담았다.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도약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0년,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광주여성영화제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서 성장해왔다. 13회 동안 안정적으로 진행된 광주여성영화제는 의미와 내용을 아시아를 향해 “더 크게” 확장하는 첫발을 내딛었다.

영화제 기간 중 진행된 특별포럼 '여성의 영화적 시선: 광주아시아여성영화제의 비전'에서는 폐차로 대만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홍소인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 <신기록>을 연출한 허지은 감독, 그리



고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아시아여성영화제로의 확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워진 프로그램 구성과 개막작 <애국소녀>

14회 광주여성영화제는 11개의 섹션을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메이드 인 광주', '권 당선작', '마스터클래스', '배리어프리' 외에도 역대 광주여성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를 반영한 이름의 '날선낫선', '피어나는', '선을넘는'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 영화를 모은 섹션을 통해 지금, 광주여성영화제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들을 구성했다.

개막작은 남아름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애국소녀>였다. 2030세대 페미니스트 활동가의 시선으로 전개된 과거, 현재,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14회 광주여성영화제의 시작을 '더 크게 한판' 열었다. 영화 상영 후 이어진 남아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관객들의 공감과 응원의 열기가 뜨거웠다. 많은 청년 관객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반성하게 됨과 동시에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았다고 전했다.

14회의 포커스: '잊혀지지 않을 여전사들'과 '광주에서 정치하는 여자들'

광주여성영화제는 영화 상영 후 특별한 게스트와 관객이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왔다. 올해 광주여성영화제가 주목한 사회적 이슈를 영화와 연관지어 말하는 '포커스 토크'는 광주여성영화제의 간판 프로그램 이벤트다. 14회의 포커스는 바로 '광주'와 '정치'였다.

포커스 토크 '잊혀지지 않을 여전사들'은 <금주의 유산>, <나, 양금덕> 상영 후 이어졌다. 홍진선 PD, 임용철 감독, 그리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 안영숙이 자리한 가운데 광주가 잊지 않아야 할 두 인물, 故 이금주와 양금덕을 조명했다.

한편 호주 전 총리를 둘러싼 여성 혐오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강력한 여성 지도자> 상영 후에는 포커스 토크 '광주에서 정치하는 여자들'이 진행됐다. 광주의 여러 정당에서 활동하는 여성 정치가들이 모여, 광주에서 여성으로써 정치를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모였다. 각기 다른 정치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광주, 여성, 정치라는 키워드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권 작품상 <권의 뜨개질>

'권 당선작'은 11회부터 시작한 광주여성영화제 고유의 단편 경쟁 섹션이다. 매년 출품작이 늘고 있는데 현재 평균 4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다. 출품작은 예선심사를 통해 12편의 본선진출작을 선정하여 광주여성영화제 기간에 상영된다. 본선진출

작 발표 후 모집한 관객심사단과 본선심사위원이 함께 영화들을 보고 각각 관객상과 작품상, 특별상을 선정하게 된다.

권 작품상은 조한나 감독의 <권의 뜨개질>에게 돌아갔다. 감독 자신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방향과 의문을 뜨개질이라는 소재를 통해 풀어낸 다큐멘터리다. 뜨개질 세계의 난이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만다라 매드니스를 향한 열정은 심사위원 전원의 찬사를 받았다. 권 특별상은 조현경 감독의 <나의 X언니>, 권 관객상은 유재인 감독의 <과화만사성>에게 돌아갔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한 판!

14회 광주여성영화제를 준비하며 가장 마음을 졸였던 점은 바로 유료로 전환된 이후 변화하게 될 관객 수였다. 십년이 넘게 무료 영화제를 유지한 입장에서 유료화는 큰 도전이었다. 광주여성영화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건강한 문화예술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꽤 오랜 기간 유료화를 고심했다. 영화제의 존립이 위태로운 이 시국에 기꺼이 요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관객은 많았으나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진 관객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극장을 찾아주셨다. 특히 '권 당선작' 및 '이경미의 마스터클래스' 등 주요 프로그램은 일찍이 매진되었다. 이를 통해서 유료 티켓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찾아주신 관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자꾸만 뒤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끈다. 함께 모여 더 크게 소리치고, 신나게 노래하고, 다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고 싶다. 따뜻한 영화제를 만들어주신 게스트들과 관객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여성영화제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를 배워야 한다

- 소설 『범도』을 읽는 일

‘몸을 낮춰야 보이는 것이 길ियो. 길은 허공에 있지 않고 땅바닥에 있는데, 허공만 쳐다보면 길이 어떻게 보이겠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몸이 너무 높기 때문이오. 기어서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날아서 가려고만 하니 발밑에 놓인 길이 보이겠소? 짐승의 높이로 낮아지면 길은 어디에나 있소.’

이 말은 소설 『범도』의 끝부분 청산리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가 안전한 퇴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홍범도 장군이 악에 받쳐 밀려드는 일본군을 돌파하기 위한 작전 회의에서 서로군정서의 지청천 장군과 나눈 대화다.

홍범도 장군은 평생을 늘 그렇게 자신의 본업이 포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울창한 삼림 속에서 짐승이 길을 내듯 민족의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았다.

방현석 작가의 소설 『범도』는 대의를 품고 분연히 일어난 영웅이 아닌, 순진무구한 소년 사냥꾼에서 출발하여 역사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홍범도를 중심으로 일제의 침탈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다. 먹고살기 위해 군영에 들어가고,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와 그 가족을 죽인 일본군에게 홀로 복수를 감행하면서 점차 독립운동의 구심

점이 되어가는 홍범도 장군.

독립전쟁 과정에서 궁핍한 신세가 되어 광야를 헤매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영웅과 다르다. 『범도』는 평범했던 홍범도 장군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과 어떻게 싸워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혼자였던 한 소년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차이경, 군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남창일, 연모하고 존경했던 백무아, 전설적인 저격수 진포 등과 함께하며 비로소 ‘홍범도’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던 아들 같은 류진철 등 많은 대원들을 잃는 처절한 아픔을 기록한다. 때로는 같은 민족이나 심지어 과거에 같은 독립군이었던 사람들의 밀고로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록한다.

『범도』는 우리 독립운동의 최고의 승리였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 속 인물의 활약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란의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상실과 슬픔 그리고 치열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 생생히 그려낸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해 만주와 연해주를 중흥무진하는 홍범도의 궤적을 통해 당시 민중

들의 삶과 거대한 독립운동의 물결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방현석 작가가 담담하면서도 세밀하게 그려낸 당대 상황, 그 속에서 활약하는 개성 강한 인물들이 펼쳐 보이는 이야기는 큰 감동이다. 마치 한 시기를 함께 살아낸 듯 이야기에 빠져들고 그 인물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소설이 주는 미덕이다.

벽돌 두 장의 무게를 지닌 소설, 1권과 2권을 합쳐 1,300쪽에 이르는 이 방대한 소설을 위해 작가는 13년의 세월을 매달렸다고 한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고 기어이 완결할 수 있었던 힘은 작가의 역량과 열정이 아니라 홍범도라는 인물의 삶이 작가를 이끌어 갔기 때문이라는 작가의 겸손한 말이 소설 속에 녹아 있다.

작가는 스스로 홍범도가 되어, 홍범도의 목소리와 걸음걸이 그리고 그 숨결로 소설을 밀고 간다. 영웅이 아닌, 승전 보고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죽어간 대원들이 어떻게 임무를 다하고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 대원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그 모두 기록하는 홍범도의 모습으로 13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하소설에 준하는 이 소설이 탄생할 수 있었으리라.

소설이 발간된 후 우리는 느닷없이 모두 홍범도 장군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육군사관학교가 독립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며 이전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군대가 독립 영웅을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장군의 생전에 있지도 않았던 남북분단을 이유로 장군을 밀어낸 그 자리에 더 먼 역사의 인물과 교체한다는 등, 친일 경력의 인물을 넣는다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를 하고 있다. 민족을 배신하고 기어이 독립군과 전쟁을 벌이는데 앞장섰던 일본육사와 만주군관학교 장교들을 배우라는 말은 결국 육군사관학교를 개인의 이익



과 보신을 위한 장교 배출장소로 바꾸겠다는 역지가 아니겠는가? 언제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보신을 위해 적의 앞잡이가 되어도 땀땀하다는 궤변인지 의심스럽다.

군인에게 살상무기인 총과 대포를 주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할 뿐, 그 총으로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는 그 정신을 생도 모두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도록 교육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 모범으로 홍범도 장군은 당연히 늘 육사 교정에 있어야 한다.

오늘 다시 우리가 소설 『범도』를 읽어야 할 이유도 같을 것이다.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소설 『범도』이기 때문이다. ♪



정양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남발하는 문화 속 진짜 ‘문화’ 찾기

문화예술, 문화교류, 문화재단, 지역문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들었던 ‘문화기획 및 콘텐츠개발’ 수업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처음 깊게 접했다. 우선, ‘기획’이라는 단어에 혹했지만 모호하게 역동적인 모습에 근사한 카테고리 하나 붙여주면 좋겠더라. ‘문화기획’은 그런 내 고민에 꽤 어울리듯 단어가 가진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이 그럴듯해 보였다. 마치 커다란 규모의 시스템을 나의 상상력대로, 맘에 드는 색으로 칠해 움직일 것만 같았다. 즐겁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페스티벌 현장을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거나, 내 손끝 하나로 대형 오케스트라가 합주의 절정을 달리듯이 말이다. 아, 흥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에서 시작되는 거였다.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벌리듯 기획안을 쓰고, 발표하고, 여러 끄덕임 사이에서 A+를 받았다. 그렇게 ‘문화’라는 단어가 붙은 거라면 모두 쑤셔보고 다녔다. 문화재단이고, 문화프로젝트고, 문화기획자양성이고 말이다.

아… 이게 뭐지?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잖아. 근사한 모습을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나는 없고 거대한 문화 안에서 달리고, 뒷걸음질 치고, 구르고, 엎어지는 꼴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고군분투하다 기절 직전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거울 앞에서 있었다. 이게 맞나. 내가 문

화를 잘 씹어 먹고 있는 건가. 근데 문화가 도대체 뭐지…? 대학과제를 시작으로,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에서도 문화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수도 없이 배웠다. 근데 여전히 ‘문화’를 정의 내릴 수 없었다. 간결하게 정리된 정의 두 줄을 읽고 외워도 뒤돌아서면 문화가 뭐지? 싶고, 심지어 실무를 하면서는 더더욱 모르겠고,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심지어 당장의 청년문화워크숍과 지역문화포럼 일정을 앞두고도 말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예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기본으로 가치, 관습, 신념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좁은 예술적 작업으로부터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까지 뜻의 범위를 넓힌다. 동시에 그 안에서 극단적인 반대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다. 한 학자는 문화 관념 내에서 배척과 불화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도 말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뜻을 알 수 있다. 내가 살펴본 모습으로는 다양한 분야를 구분지어 하나의 활동으로 뭉뚱그려 설명할 때 가볍게 쓰이는 듯 보였다.

한 개념 안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차이가 생겨 아주 복잡해진 단어로 연구학자들

도 인정하는 부분이란다. 원래도 이렇게나 어려운 개념인데 단번에 깨우치긴 불가능한 거였다. 그렇다면 복잡한 개념들 안에서 그래 이거다. 내겐 이런 게 문화야! 하고 딱 집어 데리고 갈만한 게 필요했다. 그저 문화라는 말만 들으면 솔깃해 일을 벌이기만 할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가지고 방향과 적성을 잘 잡아 나가기 위해선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로서의 문화'는 대체 뭘까?

광주에서 문화로 먹고 살기

굳이 따지자면, 나는 '문화행정' 일을 하고 있다. (기획은 조금 곁들이는 정도?) 이 일을 하면서 문화를 피부로 느끼는 일은 아주 드물다. 흔히 떠올리는 문화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북적이고, 하나 되어 웃고 울고 허물어지는 단 하루, 아니 반짝이는 몇 시간을 위해 실제로 내가 오래 간 가까이하는 것들은 따로 있다. 몇 십 페이지의 서류, 까다로운 증빙을 앞둔 예산표, 복잡한 집행시스템, 그 밖의 무수한... +a들이다. 주변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방대한 문화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힌다. 멀리 떨어트려 남 얘기처럼 들어봐야 알 수 있을까 싶어 살핀 책은 그야말로 광주에서 문화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광주 밖에서 광주 안으로 걸어 들어온 이들의 문화 여정을 읽어내려가면서 심히 공감되고 또 차마 웃어넘길 수 없는 얘기들이 가득 담겨있었다. 광주에서 이 일을 소망하게 되는 문화적 공간과 접근성이 훌륭한 점, 그에 비해 서울만큼 기회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뚜렷한 방식과 절차가 없다는 점, 오히려 그래서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조금만 특이해도 눈에 띈달까? 그렇게 보니 광주가 무궁무진하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스무 명의 인터뷰 속에는 하나같이 다 고군분투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다. 이 책에서 느낀 바는 일하며 문화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문

화가 내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 나타난다는 거다.

갈수록 개인주의와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에 집단적 의미의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문화적 요소를 탐구하는 데에 흥미를 느낀다는 점, 문화적 교류와 학습의 유익함, 심지어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까지도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다. 또, 1인 활동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브랜드'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한다. 자신의 활동에 가치와 차별화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브랜드에 공감하고 소비하는 지지층이 모여 규모가 커진다. 결국 문화인 것이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 내가 추구하는 바를 긍정하며, 그것이 가진 재미있고 좋은 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되고 점점 많은 사람이 모여 인류애를 느끼는 일.

나는 과연 넓은 범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찾으려던 걸 찾았을까. 어쩌면 추상적인 단어를 정의 내리고자 하는 노력이 별 의미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문화를 배우고, 문화로 일하고 고군분투하며 내게 문화적 정신이 베어든 건 분명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한몸처럼 지니고 갈 것이다. 또 하나를 얻었다면, 문화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거다. 이제는 문화가 떠먹여주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마음이라면 꽤 거 대해 보였던 문화에서 벗어나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로 가지고 놀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맨 처음에 이 길을 걸었을 때의 근사한 상상처럼 말이다. ♪



김혜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간사

숲과 물 사이, 유쾌하고 신비한 아름다움

- 미국 최초 국립공원 옐로스톤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강렬한 여행의 경험은 꼭 장기간의 여행에서 얻어 지는 것은 아니다. 며칠이거나 혹은 단 몇 시간의 여행일지라도 여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우주의 한 부분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풍경이 있다는 것을 필자는 이번 미국 서부 국립공원을 찾아가 2주간의 여행에서 깨달았다. 로키산맥의 산자락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솔트레이크는 소금호수와 동계 올림픽의 장소, 몰몬교의 성지라는 것 외에도 시가지의 풍경과 유타대학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세웠다는 레드 뷰트 가든(Red Bute Garden) 수목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공기까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이 도시에 대한 우리들 짧은 지식의 시작과 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공원 간의 이동 거리가 멀어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까지 수 시간 걸려 도착했고 공원의 야영장에서 캠핑을 했지만 아침에 햇살과 사막의 공기, 곧게 뻗은 숲의 경건은 지구의 심장도 두근거린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이번 여행으로 돌아 본 미 서부의 국립공원은 그랜드티턴, 옐로스톤, 아치국립공원, 브라이스캐년, 그랜드캐년, 레드힐 가든 등이었지만 여기서 보면 관계상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옐로스톤의 매력을 적어 보기로 한다.

오래된 물기둥과 야생의 문장- 깊은 숲과 호수

수세기 동안 침식과 용기를 통해 단단히 다져진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수증기의 기둥을 보려고 야구장 스타디움같은 나무 의자에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옐로스톤 공원 내에만 전 세계 간헐천의 3/2에 해당하는 약 500여개의 뜨거운 수증기를 뿜는 간헐천이 있지만 그 중 높이가 90m에 달한다는 올드 페이스풀의 신비는 어떤 예술 작품 보다 예술적이었고 최고의 흥분을 주었다. 이 장관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그 장관을 보려고 긴 아치형의 나무 계단에 앉아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 간헐천의 물빛은 짙은 청색이 많고 오렌지와 노란색 등 다양하고 이름도 각각 다르다. 맑은 청색이 많은데 깊은 곳 마그마가 태양의 색 중 다른 색은 모두 흡수하고 청색만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옐로스톤'이라는 이름은 공원 주변을 흐르는 '옐로스톤' 강이 황성분을 포함해 바위가 누런 까닭에 붙여진 것이다. '옐로스톤'은 이 간헐천 외에도 눈길이나 발길 닿는 곳 모두 천혜의 비경이었다. 이곳에 오기 전 일행은 와이오밍주 북서부에 위치한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을 먼저 들렀다.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의 내부를 지나 옐로스톤으로 갈 수 있는데 넓은 잩은 흙과 바이슨(들소처럼 생겼음) 목장, 크리스탈 호수, 야생

화들의 평원을 즐길 수 있고 일만 피트가 넘는 산중턱에는 흰 눈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산 아래 쪽으로는 단풍이 물들고 있어 독특한 색채들이 층층이 쌓여 넓은 파노라마를 연출하는 가을과 겨울의 보석같은 풍경을 보여주었다. 빙하가 녹은 곳에서는 암석과 토사가 쌓여 퇴적물을 이루는데 이것을 ‘모레인’이라고 부르며 ‘모레인’은 대개 끝이 뾰족한 앵겔만 가문 비나무와 키가 크고 곧은 로지폴소나무로 덮여 있다. 그랜드티턴에서 옐로스톤으로 들어서는 길 위의 풍경은 사막에 쓴 야생의 문장이었다.

물빛이 탄성을 지르게 하는 ‘제니 호수’에서 다시 페리를 타고 호수 건너의 폭포를 감상했다. 그랜드티턴을 나서 오후에는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옐로스톤에서 Old Faithful geyser의 장관을 보고 밤늦은 시간 캠프장인 Fishing bridge RV park에 도착했다. 일행은 때마침 추석 전야라 높은 산정의 야외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빛나는 별과 달을 만끽했다. 이전에 생각했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라도 장작 불을 피우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방랑자로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순수한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저녁식사 후 준비해온 차를 데워 마시고 잠들기 전 달빛이 낭자하게 흐르는 공원의 밤길을 걸었다. 사막의 공원에 가득한 달빛은 어디에 담아 둘 수 없었지만 일행은 이미 말없이 미소와 눈빛으로 우리 생의 한순간이 참으로 빛나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날은 맘모스 테라스 모양의 간헐천을 보았다. 예전에는 석회암 지대인 이곳에 옥색의 물이 많이 흘러 내려 폭포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했다는데 약 20년 전부터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물길은 흔적만 남고 흰색 계단모양만 남았지만 여전히 신비스러웠다.

1988년 이곳 옐로스톤에서 자연 발화로 생각되는 대화재가 있었고 당시 지구역사상 최대의 재앙이라 불릴 만큼 불은 한 달 내내 계속 되었다고 한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자 다행히 남은 불길은 잡혔지만 이 불로 소방당국의 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야



수증기가 솟는 옐로스톤 간헐천에서 필자


생동물과 공원 면적의 45%나 되는 산림이 불탔다 한다. 하지만 자연은 자연으로 치유되어 불탄 나무들의 흔적과 새로운 수종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다시 관광객을 부르고 있다. 수채화 같은 옐로스톤의 풍광 중 압권은 수려한 바위절벽이다. 아리조나주의 그랜드캐년과는 다른 ‘옐로스톤 그랜드캐년’이라 불리는 이곳을 19세기 말 미국의 화가 토마스 모란도 ‘예술이 닿을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그곳을 나서 유명한 아이다호의 메사 폭포를 보면서(Mesa Fall) 한 점 물방울이 수 만송이 흰색 꽃의 ‘환희’로 활짝 피어나는 찬란한 투신을 목격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대자연의 모든 풍경에서 겸손과 순수, 온유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여행의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다. ♪



김정희 시인, 재단 편집위원

문화공감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아파트성벽

자꾸
자꾸만 쌓아 올리면,
그래서 성이 되어버리면
우린 무엇을 보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숨쉬고 어디로 나가야 할까? 
김옥열_ 사진작가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열네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개최



‘환대를 가득안고 고려인 마을! 안녕, 즈드라스트부이제’란 주제로 열 네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행사가 지난 9월 16일(토) 30여 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고려인 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교류마당은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한 고려인 마을의 삶의 방식 및 터전을 일구어 온 경험의 고찰을 통해서 광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존중하는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마련되었다.

아문도시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광주에 대한 강좌와 고려인 마을의 역사성과 문화마을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탐방 및 고려인이 직접 운영하는 현지 음식 체험도 병행한 이번 행사는 특히 지난해 8월 15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봉환된 1주년을 기념해 홍상을 세운 ‘홍범도 공원’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광주문도협(재단 간사단체) ‘구꿈스러운 광주 근·현대 역사와 문화’ 강좌 마무리

지난 11월 1일(수) 광주문도협(재단 간사단체) 생통강좌 답사가 광주와 목포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답사는 ‘구꿈스러운 광주 근·현대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진행되었던 강좌의 마무리 행사로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답사는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이 동행하여 장소에 스며든 역사문화자원의 의미와 스토리가 더해져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번 강좌와 답사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가 주최하고 우리 재단(이사장 김덕진)이 주관하여 근·현대 역사문화의 가치와 숨결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재고하고자 기획된 강좌였다.

재단 주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광주역사문화자원 주제로 학술심포지엄 열려



우리 재단이 주관한 16회 학술심포지엄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광주역사문화주제’로 지난 11월 15일(수) 오후 3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관련 전문가, 문화기획자, 시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라진 광주읍성의 대표적인 누각이었던 희경루가 광주공원에 증건됨에 따라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광주읍성 관련유적 등 광주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재단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읍성 연구 및 책자 발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했다. 본 행사는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 ‘광주읍성 고찰로 본 광주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과제’(김원중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 ‘희경루 건립추진 과정과 이후 활용 방안’(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 ‘도시공간 변천에 따른 역사문화기반 도심재생

방안(이영미 ㈜집합도시 대표이사)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준수 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정성규 UCL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가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조직

제4차 후원이사회 개최



재단 4차 후원이사회의가 지난 11월 7일(화) 이사진이 참여한 가운데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 재단 송년의 밤 개최 프로그램에 관련 논의와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신규 후원이사 총원 안건에서는 사무처 확인 결과에 따라, 명단 검토 후 조직 정비 후속처리를 진행키로 하였다. 한편, 재단 임원 조직 정비는 12월 중순에 열리는 정기 이사회 및 전체 임원회의의 연석회의에서 논하되 필요한 후속조치는 각 의결기구에서 논하고 진행키로 하였다.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재단 4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월) 18시 30분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처로부터 2024년 사업

및 조직 계획에 대하여 공유하고 운영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순에 개최되는 2차 정기 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에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운영위원은 임원회비 납부, 회의 출석, 사업참여 등을 기준으로 조직 정비를 진행키로 하고 후속조치는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에 위임하였으며, 2025년이 재단 창립 20주년을 감안하여 창립 20주년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정기이사회에 부의키로 하였다.

• 연대

광주문도협(재단 간사단체), 광주·대구 지속가능한 연대와 교류 개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재단 간사단체)와 대구 영호남경제문화교류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12일(목) '2023 달빛공감 : 광주대구 지속가능한 연대와 교류' 행사가 개최되었다.

양 지역의 시민문화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경일대학교 학생들이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올해 네 번째 개최하는 교류행사로 광주 방문은 처음이다. 교류 행사는 간담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탐방,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친교와 소통을 주제로 환영 만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탐방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 8주기 추모제 열려

우리 재단 4대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 8주기 추모제가 지난 9월 23일(토) 오후 2시, 국립5·18민주묘지

재단·회원소식



에서 열렸다. 민중의례, 년보낭독, 인사말, 추모사, 유족인사, 분향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는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민주화운동을 펼치다 해직되어 거리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중문학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를 맡으시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한 선생의 뜻을 받들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추모제는 우리 재단을 비롯하여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기념사업회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주문도협(재단 간사단체) 2차 생토포럼 열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 상상넷 공동주최로 지난 11월 28일(화) 오후 3시, 전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정착을 위한 민·관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민·관이 TF를 구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1년 가까이 조율하고 문화예술인 및 시민 대상 설명회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해 2월에 제정된 '예술인 지위와 권리 증진 조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공론의 장이었다. 사회는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

재단 상임이사가 맡았으며,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가 조례 제정 이후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민·관의 입장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서 패넬로는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정두용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백승현 대동문화재단 출판미디어본부장, 조인형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재형 예비 예술인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포럼에서 도출된 제언과 내용은 광주시 정책에 반영토록 민관이 함께 노력키로 하고, 민관협치 문화예술분과에서도 의제로 정해서 논의만큼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하였다.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박신영 이사(국제PEN광주위원회 이사장), 세계한글작가대회 광주서 열린다



국제PEN은 지난 1921년 영국 작가 W. 스코트의 제창으로 창립된 문화단체로 모두 145개국에 소속돼 있다. 구체적으로 PEN(Poets, Playwrits, Editors, Essayists, Novelists의 약자)은 문필에 종사하는 각국 문인들의 고유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됐다.

지금까지 국제PEN한국본부는 모두 8회에 걸쳐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개최했다. 1회부터 5회까지는 경주에서, 6회 7회는 서울, 8회는 경주에서 열려 서구 중심의 문제를 한글과 한국 중심의 화두로 초점화해 조명했다.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역위원회(이사장 박신영)는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작가대회는 국제PEN한국본부가 주최하고 광주지역위원회가 행사를 진행하고 추진한다.

- <광주일보> 발췌

백수인 고문(조선대 명예교수),
김현승 詩 정신 '문학제'로 잇다



다형기념사업회(이사장 백수인·기념사업회)는 19일 제1회 '김현승 詩 문학상'에 다형의 제자인 손광은 시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동구 전일빌딩245 9층 공연장에서 열린 '김현승 詩 문학제'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손광은 시인(대리 수상 딸 손지형)에게 상금 2,0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이날 문학제와 시상식에는 시인인 이근배 전 대한민국 예술원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시민과 문학인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주남구청, 광주예총, 광주일보, 광주문인협회, 한림문학재단이 후원하는 '김현승 詩 문학상'은 등단 20년 이상의 기성 시인을 대상으로, 문단의 저명한 문인들로 꾸러진 심사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 <광주일보> 발췌

김기곤 운영위원(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 광주연구원, 개원 이후 첫 보직인사... 연구본부장에 김기곤 선임연구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6일 (재)광주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해 최치국 원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개원한 (재)광주연구원이 첫 보직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연구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연구원은 19일 부서별 연구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조직안정화를 위한 책임성, 기존 연구원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연속성 등 3대 기준을 중심으로 1본부, 5실, 5센터에 대한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연구본부장에는 김기곤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 <남도일보> 발췌

주홍 부운영위원장(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이이남 회원(미디어 아티스트), 가을밤 밝히는 빛의 향연... '2023 달빛산책' 13일 개막



야외에서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작은 공공미술축제 '2023 달빛산책(moonlight walk)'이 오는 13일(금)부터 다음 달 5일(일)까지 서울시 노원구 당현천에서 열립니다. '빛의 연금술'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국내외 작가들과 공방 20개 팀이 참여해 서울시 노원구 상계역 수확문화관에서 중계역 들국화어린이공원까지 2.5km 구간에 신작 1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이남, 장지연, 조영철, 박봉기, 주홍, 정인성, 이채원, 김지혜, 안경진, 정인성, 홍현주 작가와 가제트 공방, 전영일 공방이 참여합니다.

- <KBS뉴스> 발췌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열 (주)다큐디자인 대표
김정희 시인, 광주학생독립운동여학도기념역사관 기획실장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박종찬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견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수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최화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무총장
김경한 이야기브릿지 대표
김기곤 광주연구원 연구본부장
김병희 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단장
김성환 서구청 문화정책 전문위원
김윤아 광주치매예방관리센터 센터장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송지나 음악/공연기획 전문가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이상필 동신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
김원중 전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

김동규 준이앤씨(주)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용혁 (주)페르소나시 본부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황재익 (주)오스메딕 대표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다큐디자인 대표

〈편집위원〉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주간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정철웅 시인, 문학박사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편집 후기

광주문화계는 2023년에도 핫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 잘 풀렸던 일 보다는 어둡고 불편했던 일들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율성 역사공원조성 등의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까지 퍼졌는데 과연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생각들을 가졌을까 자문도 해봅니다. 문화도시 광주에서 벌어진 문화이슈들을 특집으로 다루었으니 한번 읽어봐주세요. 이번 호에서 눈길 끄는 기사 중 하나는 문화인 인터뷰에 초대된 윤만식 한국민족극협회 고문입니다. "탈 많은 세상, '탈'만은 놓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윤 고문의 스토리가 울림있고 재밌습니다. 가는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송년의 밤

회원님은 우리 재단의 버팀목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2023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소중한 시간, 함께하길 청합니다.

이사장 김 덕 진 | 후원회장 오 형 근 | 운영위원장 김 양 균

일 시 2023년 12월 27일 (수) 오후 6시 30분

장 소 델리하우스

참가비 맛있는 식사비 1만원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세요

2023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4 새해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지금 **지콘**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Q 애니메이션·캐릭터 제작

Q 웹툰·웹소설 창작

Q 청년 창업 멘토링

Q 지역 뮤지션 양성

Q 영화·드라마 제작

Q 기업 투자 유치

Q OTT 콘텐츠 제작

Q 모바일·VR게임 제작

Q 글로벌 진출

Q 모바일 앱 개발

Q 인공지능 콘텐츠 융합 창작랩

Q 저작권 교육

